

중국에 소개된 장혁주 소설의 리얼리즘 연구

- 「쫓겨가는 사람들」, 「권이라는 사나이」, 「산령」을 중심으로 -

조가유*

〈차 례〉

1. 서론
2. 호풍과 장혁주의 동일한 시선
3. 보편적 의미를 부여한 특수적인 것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1930년대 초 중국에 소개된 장혁주의 작품들이 지니는 리얼리즘적 의미를 밝혔다. 식민지인인 장혁주는 「쫓겨가는 사람들」, 「권이라는 사나이」, 「산령」 등의 작품을 통해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장혁주의 리얼리즘 기법인 보편성과 특수성의 재현방식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혁주는 노골적으로 식민통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지배당국에 협박을 받은 후, 이후 작품에서는 중국에서도 화제인 동족상잔이라는 주제로 조선의 권력자 문제를 폭로했다. 나아가 장혁주는 중국에도 존재했던 봉건자본의 문제를 조선의 식민지인들의 실형 문제와 교묘하게 연결시켜 다뤘다. 이 소재들은 중국 지식인들에게 망국의 상징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하였다. 장혁주는 리얼리즘 기법을 활용하여 자국과 타국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형상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소설의 수용자인 중국인 문학 평론가인 호풍처럼 지나친 자아비판의 정신 때문에 소설에서 자민족 내부 소수의 불명예스러운 문제를 형상화하다가 동포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혁주의 문학에 대해 많은 국내의 연구자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려 하지 않으며, 그의 몇 백편이나 되는 소설은 시중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1930년대의 한국 문단이 그의 소설에 대해 내린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그의 작품들은 세계문학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로

의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제어] 장혁주,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리얼리즘, 소설

1. 서론

식민지시기인 1930년대의 장혁주는 중국과 대만의 문단에서 인기가 꽤 있었다.¹⁾ 그는 1932년 일본 중앙문단의 문예잡지 『개조』에 『아귀도』를 발표하고 수상한 후 식민중주국의 일본인뿐만 아니라 반(半)식민·반(半)봉건 상황하의 중국인, 그리고 식민지인인 대만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예컨대 1937년에 등단한 ‘룡잉종(龍瑛宗)’이라는 대만인 작가는 명백하게 자신이 장혁주의 『아귀도』가 상을 받은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 처녀작인 『파파야 나무 마을』²⁾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1935년에 일본문단에 진출하기 시작한 대만의 ‘뤄허뤄(呂赫若)’ 작가도 장혁주로부터 적지 않게 ‘감명’³⁾을 받았고, 장혁주를 닮고 싶은 마음에서 자신의 필명 중의 한 글자를 장혁주의 ‘혁(赫)’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⁴⁾

- 1) 율미란에 따르면 ‘장혁주 문학은 식민지시기를 기반으로 태어난 일종의 ‘한류’의 원시적 형태라 할 수 있다.’ 그가 일제시기에는 조선의 문학을 정리하여 일본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율미란, 『장혁주 문학 연구 : 조선을 소재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2) 이 작품은 일본어로 발표되었으며 제목은 『パパイヤのある街』이다. 현재 대만에서 중국어인 『植有木瓜樹的小鎮』로 번역되었다.
- 3) 뤼허뤄는 일본어 번역본을 통해 세계 각국의 명작을 접하게 되었다. 세계 명작 중 조선인 작가의 경우 그는 특히 장혁주의 『인간의 유대』(1941.2)와 『아름다운 역제』(1941.6)를 읽고 난 후 장편소설을 쓸 결심을 갖게 되었다고 자신의 일기장에서 밝혔다. 張嘉元, 『呂赫若研究』, 東海大學 碩士論文, 2002, 56쪽.
- 4) 필명에 대해 뤼허뤄는 자신이 사범학교 시절(1928~1932)부터 매우 명성이 높고 자자한(赫赫有名) 젊은이가 되기를 바라는 혁약으로 지은 것이라고 친척에게 말한 적이 있다. 吳敏惠 製作, 李行 導演, 賴豐奇 撰稿, 『作家身影系列二 : 咱的所在 咱的文學2 - 冷峻的人道關懷者 呂赫若-』, 台北市 : 春暉國際, 2002. (影音資料) 사실상 ‘혁약’이라는 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설이 있다. 장혁주 관련 설에 관하여, 우영복이라는 대만신문사의 유명한 기자이자 평론가가 있었는데 그는 뤼허뤄에게 혁약이라는 필명에 조선의 유명한 작가인 장혁주의 느낌이 매우 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혁약은 “그래, 나는 장혁주보다 나이가 젊으니 혁약이라 한다. 일본어에서 약이라는 글자가 젊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라고 하였다. 巫永福, 『呂赫若의點點滴滴』, 『巫永福全集 評論卷』, 臺北 : 傳神福音, 1996, 116~117쪽. 張嘉元, 위의 논문, 57~72쪽 재인용. 한편으로 주가혜(朱家慧)가 자신의 저서에서 ‘여혁약의 곁서 친구를 인터뷰한 임씨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적은 바가 있다. 그것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장혁주는 「아귀도」 이후 1932년 10월에 발표한 「쫓겨가는 사람들」, 1933년 12월에 발표한 「권이라는 사나이」, 1934년 6월의 개조사에서 간행한 단행본인 『권이라는 사나이』에 수록된 「산령」이라는 작품을 통해 중국 대륙에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장혁주의 「쫓겨가는 사람들」과 「권이라는 사나이」는 모두 1934년에 번역·소개되었다.⁵⁾ 「산령」이라는 작품은 1936년에 ‘호풍(胡風)’라는 문예이론가, 문학평론가, 번역가, 좌익 문화대표자에 의해 『산령-조선대만단편소설집』에 수록되며 번역·소개되었다. 거기에는 한국현대소설 4편과 대만현대소설 3편이 수록되었는데 장혁주의 「산령」(1934.6)과 「성모 가는 사나이」(1935.8)는 그 중 2편이다.⁶⁾ 이처럼 장혁주는 식민지시기의 동아시아에서 매우 각광을 받은 조선 작가였다. 그의 작가적 노력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컸다.

당시 해외로 소개된 장혁주의 작품들 중, 일본에서 「산령」이 아닌 『권이라는 사나이』의 표제가 된 「권이라는 사나이」라는 작품이 주목을 각별히 받은 것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산령」이 『산령-조선대만단편소설집』의 표제가 된 동시에 첫 번째 작품으로 수록되어 각별히 주목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령」은 다른 작품들보다 더 중요한 위상을 가진 작품임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이유는 편역자인 호풍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먼저 1936년에 이 단행본의 편집자인 호풍의 서문을 살펴보자. 그는 “작년에 『세계지식』 잡지에서 약소민족의 소설을 연재한 것을 보고 동방의 조선과 대만이 떠올랐고 그들의 작품을 중국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다

꼭써 친구가 ‘혁약은 조선인 작가인 장혁주 및 중국인 작가인 곽막약이라는 두 작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했다. 朱家慧, 『兩個太陽下的台灣作家』, 台南: 台南市立藝術中心, 2000. 許芷若, 『呂赫若書寫女性研究』, 國立中山大學 碩士論文, 2013, 1쪽 개인용.

- 5) 장혁주가 「아귀도」 이전에 쓴 소설인 「박전농장」(1932)은 중국인 역자인 엽군건(葉君健)에 의해 1935년에 『대중지식』(상해)에서 번역 소개되었다. 김주현,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81호, 국어국문학회, 2017, 176쪽.
- 6) 김장선,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의 장혁주 작품 번역 수용」, 『한중인문학연구』 제51집, 한중인문학회, 2016. 장혁주의 소설들은 그 후 ‘1939년에 「방랑」, 1941년에 「늑대」(1934.5)와 「이치삼」(1938.2)이 차례로 중국에 번역 및 소개되었다.’ 「늑대」와 「이치삼」은 『조선단편소설선』에 기타 조선 작가들의 작품들과 같이 수록되어 출판된 것’이다. 이후 중국에서 ‘장혁주의 수필집’을 포함하여 ‘1940년대는 단행본으로 한국현대문학작품들이 번역 소개되고 대체로 장혁주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고 생각하여 먼저 대만 작품인 『신문배달부』를 번역하여 소개했다.” “생각보다 독자들의 호응과 칭찬을 받았기에 『산령』이라는 작품을 이어서 번역, 소개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날이 갈수록 생사존망의 고비 앞에 다가가고 있고 지금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해야 할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할 때 ‘외국’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읽게 되고 따라서 독자들도 자신처럼 같은 마음일 것이다.”⁷⁾라고 하였다. 편집자인 호풍의 말을 살펴보면 그가 왜 『산령』을 표제로 설정했는지는 여전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중국인들에게는 이질적일 수 있는 조선의 이야기를 중국인들의 보편적 이야기로 삼아서 현실세계의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장선은 『산령』에 대해 “중국 프로문학과 항일민족문학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친 한반도 프로문학 내지 프로동반문학”이라고 하였다.⁸⁾ 김병식은 『산령』이 장혁주의 초기 작품들 중 가장 민족주의적 저항의식이 강하게 표출된 작품이라 평가했다. 김병식은 ‘장혁주가 초기 소설들에서 일제치하의 사회적 모순과 수탈로 인한 농민들의 괴로운 삶을 그려냈으며, 『산령』은 특히 조선을 바라보는 작가의 비통한 심정과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하였다.⁹⁾ 그러나 『산령』의 특징에 대해서 김병식은 장혁주가 직접적으로 산령(山靈)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있어 그 산령은 구원의 존재라기보다 산 속의 화전민들의 괴로운 생활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존재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산령(山靈)’이라는 말을 ‘산신(山神)’이나 ‘산귀(山鬼)’와 구별해서 본다면 산령을 보호자나 구원자로만 해석하는 관점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김병식의 이러한 평가는 산령이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소설 속의 ‘산령’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령(靈)으로 묘사되어 있는지를 밝혀야만 호풍이 『산령』의 어떤 매력에 빠졌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7) 胡風 譯, 黃源 編, 『山靈-朝鮮臺灣短篇集』, 文化生活出版社, 中華民國 25年 4月 初版, 5月 再版.

8) 김장선,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의 장혁주 작품 번역 수용」, 위의 논문.

9) 김병식, 「장혁주의 『산신령』과 김사량의 『태백산맥』 비교 고찰」,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장혁주의 『쫓겨가는 사람들』(1932)은 일본인 지배자의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소작료를 감당하지 못해 고향을 떠나 멀리 북간도로 가야만 하는 조선 농민들의 땅을 일본 농민들이 와서 차지한다는 이야기이다. 『권이라는 사나이』(1933)는 순박한 좌익 지식인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부정적 인물이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자 순박한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이야기이다. 『산령』(1934)에는 앞서 말한 두 작품과 함께 일제 및 지주의 문제를 다루고, 착취를 당한 농민들이 쫓겨나며, 권력자에게 이용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산령』은 이보다 더 색다른 부분이 밝혀져야만 두 작품보다 늦게 창작되었으나, 중국문단에서 장혁주의 대표작이 된 『산령』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장혁주가 ‘현실 속의 경험’¹⁰⁾을 통해서 소설을 창작한 ‘리얼리즘 유파’¹¹⁾의 작가라는 점과 리얼리즘을 중시한 평론가인 호풍이라는 편역자를 주목하여 『쫓겨가는 사람들』, 『권이라는 사나이』, 『산령』을 함께 다루며 장혁주의 초기 3편의 일본어 소설이 지닌 리얼리즘적 의미와 그 예술적 매력을 탐구하도록 하겠다.

2. 호풍과 장혁주의 동일한 시선

장혁주는 ‘프로문학 동반자이자 자유주의 경향의 좌익 작가’였으며, 그가 제시한 ‘산령’이란 중국인에게에는 ‘상흔이 많은 노예의 영혼’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다.¹²⁾ 어느 사상에도 구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다는 성향을 가진 그

10) 1946년에 중국에 번역·소개된 장혁주의 수필집인 『私の風土(내 풍토기)』(1938.02)에서 장혁주가 자신의 작품들이 대부분 현실로부터 소재를 찾아서 형상화한 것이라 상세하게 설명했다. 張赫宙著, 范泉譯, 『我底作品的成因』, 『朝鮮風景』, 永祥印書館, 1946.

11) 이토우 츠토무(伊東勉)에 따르면 리얼리즘이란 예술가의 체험을 기초로 한 사회적 현실의 생활 형태에 대한 형상적 인식이다. 이토우 츠토무(伊東勉) 저, 이현석 역,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 세계, 1987.

12) 중국에서는 당시 주장명(周鋼鳴)이 『산령-조선대만단편소설집』에 대해 상세한 서평을 내놓았다. 예컨대 그는 장혁주를 “자유주의적 작가”, 이복명과 정우상을 “카프계열에 가까운 전진작가”라 했고 대만작가인 양쿠이, 뤼허뤄, 양화 역시 “프로 계열의 전진작가”로 구분하였다. 또한, 그들의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로서 조선과 대만이라는 약소민족이 원동제국주의의 철제 하에 어떻게

는 심지어 1935년 11월 『신동아』가 주최한 문학좌담회에서 조선 문단의 작품을 논하면서 ‘조선 지식인들과 조선 작가들의 다양한 부족함’을 신랄하게 폭로했다.¹³⁾ 이러한 장혁주의 발언은 자민족 문학의 수준이 상당히 부족하여 우수해지려면 반드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자기편하에 가까운 인상을 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나중에 해방공간의 문화통일전선을 위해 노력했던 임화의 ‘남이 다 좋고 자기만 안 좋다는, 겸손하다는 진실된 자이비판의 발언’¹⁴⁾을 상기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장혁주가 인간으로서, 예술가로서 지녀야 할 자유의지의 중요성, 예술작품을 창작할 때 무한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 ‘도식적이지 않는, 새로운 가능성의 재현’, 또한 ‘남을 높이고 자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점에 있어서 ‘당시 한국 작품을 가장 많이 번역’, 그리고 ‘편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피의 역사적 사실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상흔이 뒤얽혀 있는 노예의 삶과 굴욕당한 영혼이 형상화되어 있는 점.”, “굴욕을 당하는 감정과 비애의 선율을 호소력 있게 끌어내고 있고”, “이 같은 소설은 국제문단의 그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소설이며, 조선의 대표작으로 추천할 만하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周鋼鳴, 『讀過的書 : 山靈(朝鮮台灣短篇集, 胡風譯, 文化生活出版社出版)』, 『讀書生活』 4 : 7(1936. 8), 365~367쪽; 한인혜, 『일제 강점기 중국에서 번역된 조선문학 - 중화적 세계문학 개념과 조선문학의 위치』, 『비평문학』 64호, 한국비평문학회, 2017, 191~192쪽, 365쪽 재인용.

- 13) 장혁주는 조선 작가들의 노력 부족을 탓하며 “과거 허다한 작품들의 가장 큰 결점은 작가의 빈곤한 학식, 사상의 유치함으로 인해 작품의 내용이 찬박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묘사력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였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작품, 고질적인 비애가 절정을 이루는 작품, 살인, 방화 등에 대해 엉망으로 쓰여 사건의 변천을 가만히 관찰하려는 작품이 조선 문학의 결점이며, 계산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서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선 문단에서 자연주의적인 세태가 필요하고 사실주의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진정한 사실주의로 도약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장혁주, 왕필 역, 『조선문단 상의 작가』, 『燕然』 1(10), 1936, 11~13쪽; 한인혜, 위의 논문, 200~203쪽 재인용.
- 14) “우리 조선의 순교사처럼 처참한 역사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때 우리 민족이 표시한 희생적 정신은 하나의 높은 예술로서 민족의 자랑일 것이고 순교사는 우리 이조 오백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임화의 말로는 “자기비판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자기비판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느냐? 내 스스로도 느끼기 두려웠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자기비판의 양심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의 허위상 가치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겉허하게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의 비밀을 솔직히 털어두는 것으로 자기비판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남도 나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남은 나보다 착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나만이 가장 나쁘다고 엄히 긍정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자기를 비판할 수 있다. 이것은 양심의 용기이다.” 신형기, 『문학운동노선의 수립 - 문학자의 자기비판』, 『해방 3년의 비평문학』, 세계도서 출판, 1988, 79~85쪽.

역하기도 한 중국인 문사인 호풍¹⁵⁾과 흡사한 면이 많다.

1934년부터 평론가의 길에 들어선 호풍은 1936년 초반부터 모택동(毛澤東)을 위시한 당권파 이론가들과 리얼리즘 전형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리얼리즘 전형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 및 ‘도식적이지 않는 새로운 가능성의 재현’이라는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풍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는 우선 ‘부르주아 개성지상주의 문예관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문예비평 및 이론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그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 등의 기계론이었다.’ ‘이것은 1930년대 혁명문학 운동이 1920년대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적 민주주의 성격(5·4신문학 운동 전통)을 부정하고 창작방법을 세계관에 뜯어 맞추려던 보편적 흐름이었다.’ 그러나 호풍은 ‘맑스주의 문학 이론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모택동 당권파 이론가들과 대립했고,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이후에는 숙청까지 당하고 말았다.’¹⁶⁾ 이것은 그가 한 가지 사상이나 특정한 체제에만 복종하려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온화한 좌익 노선을 견고 있었던 호풍은 1940년대 초에 진정한 자기비판을 통해 자민족 문학의 진보를 도모하며 “유럽화의 언어와 형식을 포함한 외래문화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그것을 중국 현실 사회 투쟁과 결합시켜서 민족 문예 및 민족 형식을 창조하는 노선을 주장하였다.” 그는 “문예란 적들과 투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성의 약점과 병태(病態)를 적발해야 하고, 인민군들 중의 정신적 노예의 창상(創傷)을 보여줘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그는 “계몽에 신경을 쓰고”, “국민성을 폭로하고”, “문예의 내용과 형식이 반드시 새로운 시대의 성질과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이 발언들은 호풍이 당시 중국 문단의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발언들은 자아비판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외부와 내부에

15) 김주현, 위의 논문, 166~169쪽.

16) 임춘성, 『1930년대 후평의 리얼리즘론 연구』, 『중국현대문학』 15집,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1998, 108~109쪽.

17) 李澤厚, 『中國現代史思想史論』, 北京東光印刷廠, 1987, 82~83쪽.

대해 모두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호풍이 뒤늦게 1940년대 초 모택동 파(派)와의 ‘민족문제 형식 논쟁’ 속에서 한 말이지만, 앞서 살핀 호풍의 동향을 고려해본다면 이는 1936년부터의 호풍과 1933년부터의 장혁주의 생각이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장혁주는 1933년에 “광대한 세계가 이 민중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음을 알게 하고 싶고, 그것을 고발/폭로하고 싶다.”라며 자신의 문학이 “이것을 위해 존재하길 바라며 가치를 지니길 바란다.”¹⁸⁾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932년 10월 『쫓겨가는 사람들』을 발표하며 당시 일제가 은폐하고 싶어하는 부정을 드러냈지만, 『쫓겨가는 사람들』이 검열 때문에 ‘조선에서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스다가 도쿠조(保高德藏)에게 다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 이에 장혁주는 ‘더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결심한다.¹⁹⁾ 따라서 장혁주는 1933년 10월부터 창작 방식을 바꿀 것을 밝힌 후 『권이라는 사나이』²⁰⁾를 통해 자민족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식으로 폭로를 진행하였다. 다시 말해 장혁주가 1933년과 1935년에 했던 말들에 따르면 폭로문학이란 단순히 외부 지배자로 인한 비극적 현실을 폭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임화와 호풍이 강조했던 자기비판과 동일해 보인다.

호풍에게는 ‘전형론을 제기하면서 1936년에는 당권파 이론가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일’, ‘그의 비극은 바로 이 해에 그 씨앗을 잉태했다는 것’²¹⁾ 그리고 ‘1942년의 논쟁에서 패배했다는 일’²²⁾이 있었다. 한편으로 장

18) 장혁주, 『僕의文學』, 『文藝首都』 1권1호, 1933.1; 王惠珍, 위의 논문, 12쪽 재인용.

19) 이 점을 그가 1933년 10월에 한 말인 “奮起者”가 금지되었다. 작년 10월에 『개조』에 발표한 『쫓겨가는 사람들』은 조선에서 금지되었다. 등단한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미 2번 금지 당했다. ……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保高형에게 미안하다. 아마도 앞으로 나는 창작 방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혁주, 『翻譯の問題·其の他』, 『文藝首都』 1권 10호, 1933.10, 45쪽; 王惠珍, 위의 논문, 12쪽 재인용.

20) 김학동이 「권이라는 사나이」 대신에 「권이라는 남자」로 지칭한다. 그에 따르면 장혁주가 ‘12월부터 「권이라는 남자」 등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934년 6월에 그는 「산신령」 등 7편의 단편을 수록한 「권이라는 남자」를 출간하였다.’ 김학동, 『장혁주의 문학과 민족의 굴레』, 위의 책.

21) 임춘성, 위의 논문, 111쪽.

22) ‘민족 문제 형식 관련 논쟁의 결과는 문예 자체의 특수한 규율(미적 자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직 문예의 공리성과 정치 우선만을 강조하는 중국 현대문예실천과 이론을 지속적으로 통치해온 모택동의 1942년의 「연안문예 좌담회에서의 강연」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비해 공리주의적이지 않

혁주에게 있어 자민족의 단점을 폭로하였다가 ‘조선 문단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후 비로소 조선 문단으로의 진출을 포기하여, 일본문단에 완전히 귀의하였고 훗날에 일본 귀화까지 했다’²³⁾는 사실이 있다. 즉, 두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는 전통과 외래사상을 주의하면서 특정한 서구이념에만 종속되지 말고 겸손하게 진실 되게 자아비판을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자민족으로부터 무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같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풍의 리얼리즘의 전형론 특징을 참고해서 중국으로 소개된 장혁주의 작품들에 대해 논의해야만 이 작품들의 진가를 알 수 있다.

호풍은 리얼리즘의 중요한 개념인 전형에 대해서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이른바 보편적인 것은 그 인물이 소속된 사회 집단의 각 개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이른바 특수적인 것은 다른 사회집단 또는 다른 사회 집단의 각 개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⁴⁾ 호풍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은 얼핏 보면 ‘난삽해 보이고 모순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다.²⁵⁾ 그러나 전형 창조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뚜렷한 형상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호풍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가 인식했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식민지의 상황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서양 열강들처럼 식민지를 본국을 위한 착취 경영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일본은 착취 경영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도 나아가 식민지

은 호풍의 주장이 ‘훨씬 알파하고 아득하고 공허한 것’처럼 보였다. 李澤厚, 위의 책, 83~86쪽.

23) 장혁주는 1953년에 발표한 소설 『협박』에서 자신이 어떻게 조선 문단을 떠나게 되었고 어떻게 영영 일본문단을 향해 달리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고발했다. 그는 장광성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이 초기에 조선어와 일본어로 투고했으나 사투리로 인해 조선 문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비록 일본문단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서투른 일본어 때문에 조선어를 제대로 배우고 조선 문단에 제대로 진출하려고 했을 때 그동안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않고 추한 점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경성에 있는 문인들이 매도 공격을 심하게 자기에게 가했고 또한 잡지뿐만 아니라 신문도 문호를 자신에게 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과 영원히 결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장혁주 저, 호테이 토시히로 엮음, 『협박』, 『장혁주소설선집』, 태학사, 2002.

24) 호풍, 『什麼是典型和類型?』, 『胡風評論集』(上), 人民文学出版社, 1984, 97쪽; 임춘성, 위의 논문, 113쪽 재인용.

25) 호풍의 견해에 대해서 임춘성은 ‘인식론적으로 사고하는 호풍의 전형화 과정은 개별적 특징 선취 → 추상화 → 구체화인 것은 맞지만 특수성과 개별성을 혼동하고 있어 개별자와 보편자를 무매개적으로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임춘성은 ‘호풍이 전형의 보편성을 개념의 추상성과 동일한 것으로, 특수성을 다른 범주에 속하는 전형과의 차별성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성, 위의 논문, 112~113쪽.

의 국토와 인민을 동화, 편입시키려 했던 사실²⁶⁾을 통해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본제국이라는 매개를 거친 후 발현된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적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선과 대만 사이에는 식민지라는 보편성이 있었지만, 동시에 상이한 민족성 때문에 혁명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 순수한 애국운동을 위한 모습과, 순수한 좌익운동을 위한 모습이라는 각각의 상이하고 특수한 모습이 나타났다. 민족국가의 집단과 사회운동의 집단을 각각 큰 개체의 단위로 할 때 각 개체는 서로 다른 집단에게 특수성이 되기 마련이고, 또한 각 개체가 자기 집단 내부에서 보편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큰 개체 안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작은 개체의 유형이 공존하고 있다면, 내부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작은 개체들은 외부의 다른 큰 개체에게는 보편성을 띤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혁주와 같은 작가, 호풍과 같은 평론가의 문학적 사유를 이해할 때 먼저 한 식민지 안에 집단 형태의 개체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먼저 시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야 각 개체가 지니는 보편성이 다른 집단에게는 특수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소설 속에서는 같은 식민지인이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장혁주는 식민지 조선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특수성까지 형상화한 리얼리즘 작가였다. 중국으로 소개된 그의 이 3편의 소설들은 거시적으로 볼 때 약자를 억압하는 권력자의 문제를 폭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은 분명하다. 만약 이것이 조선인들의 보편성이라 한다면, 중국인들에게 특수성으로 인식될 수 있을 그 조선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본질이 유지되면서도 동시에 개별적인 자율성을 통해 묘사된 조선 내부의 그 특수성이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혁주의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가 근대소설의 리얼리즘적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소설 속 문제적 개인이라는 단독적이고 ‘특수한 존재’에 관한

26) 김육, 『식민지 조선·대만의 고등교육기관 문예활동 비교연구 - 학내 잡지 및 일본어 문예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3쪽.

서사가 어떻게 사회적,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서사로서 기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호풍뿐만 아니라 장혁주 역시 ‘계산’이라는 노력을 통해 끊임없이 전형적인 인물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했던 점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보편적 의미를 부여한 특수적인 것

1) 식민지 서사로서의 동족상잔

『쫓겨가는 사람들』은 1932년 10월 일본종합잡지 『개조』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며 원작은 일본어이지만 ‘1933년에 일본 에스페란티스토 오오시마 요시오가 검열 전의 원고를 구해 에스페란토로 번역하였고, 그 에스페란토 판에서 중국어와 폴란드어로 번역되어 당시에 세계적으로 널리 소개되었다.’ 2002년에 한국어로 번역한 이종영 번역가는 ‘일본어 원문을 위주로 하되 원문에서 검열로 삭제된 부분을 에스페란토 판을 참조하여 재생시켰다.’²⁷⁾

‘1934년과 1941년²⁸⁾에 이 작품을 번역 및 게재한 중국인 역자 엽군건(葉君健)의 서문을 보면 당시 그가 번역하게 된 계기는 “일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 신음하는 조선민중”, “일제국주의자들이 온갖 방법을 써서 조선민중들을 우리국가(중국) 동쪽으로 쫓아냈다는 것”과 “(일제) 자국의 민중을 조선으로 이식했다는 것”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²⁹⁾ 한편으로 1934년 7월에 『권이 라는 사나이』를 번역 소개한 중국인 역자인 황원(黃源)은 서문에서 ‘장혁주가 식민지인 조선 농촌의 지식인 삶을 묘사한 것은 일본에서 호평을 받았다’

27) 장혁주 저, 이종영 역, 『쫓겨가는 사람들』, 한국에스페란토협회, 2002.

28) 엽군건은 이 작품을 두 번이나 번역하였다. 그는 각각 1934년 6월 15일에 『申報月刊』에서, 그리고 『文藝新潮副刊』에서 게재했다. 그러나 그는 작품의 중문 제목을 다르게 했다. 전자는 『被驅逐的人間』 그대로이며, 후자는 『流蕩』이라는 것이다. 김주현,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위의 논문, 176쪽. 왜 다르게 했는지 연구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로 삼겠다.

29) 葉君健, 『被驅逐的人間』, 『申報月刊』 3-6, 1934.6.15; 김주현, 앞의 논문 참조.

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인 세누마 시게키(瀨沼茂樹)가 말한 대로 자기도 장혁주가 보여준 특수한 풍토향미(風土香味)는 평범하면서도 조선의 민족성을 띠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였다.³⁰⁾ 두 명 중국인 역자의 말은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시 한국문단의 반응’³¹⁾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쫓겨가는 사람들』은 농민 소작인에 대한 지배자의 새로운 제도를 직설적으로 폭로하는 작품이다. 발표 후, 검열 등으로 인하여 장혁주는 주변에 피해를 주게 되고, 이에 장혁주는 폭로의 방법을 바꾸어 1년 후인 1933년 10월에 『권이라는 사나이』를 창작한다.³²⁾ 창작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공통점은 있다.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타인을 유인하고 방해하는 문제적인 인간에 대한 형상화이다. 소설은 주인공인 재동이라는 농가 소년이 밭에 넣을 거름 재료를 파는 장면, 거름을 파다가 같은 마을 소녀인 옥련이로부터 놀림을 받아 옥련에게 벌을 주기 위해 그녀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소설의 결말은 두 사람이 농촌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해 헤어지는 것과, 그녀의 가족들과 같이 몇 가족들이 고향 마을을 떠나는 것으로 끝난다. 시작 부분에서 소녀인 옥련이는 재동에게 “그만하고 일해라. 또 아베한테 꾸지람 들겠다”라고 한 후 재동이는 “이 가시나가 어른 같은 소리하네”라고 대답한다. 그들의 말을 보면 자기네들 소꿉동무의 관계로 순수하고 재미있게 놀며 지내는 나이에 있다. 그러나 결말의 이별 장면에서 재동이는 “나는 니를 색시로 얻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어른답게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모습을

30) 黃源, 『姓權的那個傢伙』, 『文學』 3-1, 1934.7.1; 김주현, 앞의 논문 참조.

31) 『쫓겨가는 사람들』과 『권이라는 사나이』에 대한 당시 한국문단의 평가를 살펴보면 먼저 『쫓겨가는 사람들』에 대해 안서(岸曙)는 소작인에 대한 지주의 착취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운동에 관심이 많은 작가였던 백철은 “다분히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배타적 심리가 전면적으로 나타나 있다”, “작가적인 노력이 보이므로 동반자적 농민작가로서의 존재의의는 인정하여 일정한 존경과 평가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장혁주씨의 문학여행정 - 소설집 『권이라는 사나이』를 읽고』(2), 『동아일보』, 1934.7.5; 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 - 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83~84쪽. 다음으로 『권이라는 사나이』를 살펴보면 유진오는 ‘개인적 인간적-이상 성격을 취급한 심리주의적 작품’으로 규정하였다. 안서(岸曙)는 “그 작품이 그리 경복(驚服)할 것은 못되드라고”라는 평가를 내렸다. 시라카와 유타카, 위의 책, 84~86쪽.

32) 백세철, 『개조문예란과 조선작가』, 『제1선』 7호, 1932.11, 103쪽; 시라카와 유타카, 앞의 책, 84쪽 재인용.

보여준다.³³⁾ 재동이는 두 사람이 같이 자연스럽게 성장한 후 자신이 자연스럽게 사랑 고백을 하고 결혼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이별의 순간이 너무 빨리 와버렸고, 노골적인 사랑의 고백도 일찍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헤어짐과 같이 앞당기게 된 사랑의 고백이다.

이러한 재동이와 옥련이의 슬픈 결말은 소꿉동무와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는 식민정책에 의한 것이다. 소설에서 언급된 정책의 부분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에서는 원래 자작농이었던 재동이의 집안이 '개화와 같이 새로운 제도가 들어온 후 삶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사용하는 생활 물품도 달라지고 경제적 양식도 달라진다는 등 금융 부분의 변화 속에서 빚이 많이 생겼다가 결국 갖고 있던 밭을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양도'하게 된다.³⁴⁾ 이 제도 하에서는 소작료를 내지 못하면 경작하지 못해 농촌 소년 소녀들이 도시나 일본으로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농민들이 소작료를 제대로 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지주가 토지 사용권을 일본인 회사인 ××에게 팔았고, 그 후 일본인이라는 새로운 토지 경영자가 음모를 꾸려 농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새로운 일본인 지배자가 내세운 방침은 농민들의 지세가 모두 면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침을 설명해주기 전에는 먼저 농민들로 하여금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한다. 가령 첫 번째의 정책 변화의 단계에서 자작농이 조건을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땅을 지주에게 판매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었는가 하면, 두 번째의 정책 변화의 단계에서는 농민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동의해버리는 상태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다.

일본회사가 제시한 토지 정책에는 농민들이 일정한 양의 쌀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는 쌀의 품질에 따라 지세가 면제된 땅을 계속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쌀이 좋지 못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도 있다. 이 정책에서의 핵심은 쌀의 심사 기준인데 그 기준의 내용에 대해 일본회사 측에서 한 마디도 설명해

33) 葉君健, 『被驅逐的人間』, 앞의 책; 장혁주 저, 이종영 역, 『쫓겨가는 사람들』, 앞의 책.

34) 葉君健, 『被驅逐的人間』, 앞의 책; 장혁주 저, 이종영 역, 『쫓겨가는 사람들』, 앞의 책.

주지 않고 설명회를 끝낸다. 도장만 찍는 설명회를 끝내면서 “회사는 불법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본회사가 연 설명회는 감언이설(甘言利說) 성격의 사기 설명회이다.

성격이 단순한 농민들을 음모에 빠뜨려 땅의 임대 경작권을 박탈해 멀리 쫓아낸다는 이 식민정책은 이미 편안하지 못했던 농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켰고 또한, 소녀와 소년들의 이성(異姓)에 대한 인식이 조숙(早熟)해지게 만들어 천진난만한 소꿉동무 시절을 방해한 것이다. 순박한 사람을 유인하여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을 파괴한다는 것(식민자의 행위)이 『쫓겨가는 사람들』에서 보여주는 핵심이다. 또한 좀 더 안전하게 창작된 『권이라는 사나이』에서도 장혁주가 단순한 외톨이를 끊임없이 유인하고 없애버리는 또 다른 은폐된 부정적인 인물을 보여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권이라는 사나이』는 1인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인공을 ‘나’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제목에서 ‘권’이 강조되기 때문에 권이라는 남자는 주인공 김씨인 ‘나’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나’는 이촌이라는 낯선 시골 마을에 막 온 촉탁 교사인 김동일이다. ‘나’는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사회주의로부터 회의를 느껴 정열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낯선 이촌에 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이 새로운 학교는 “작은 부락, 게다가 마을에 어울리지도 않게 몹시 큰 학교”인 것이고,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비참해지는 기분이었다.”³⁵⁾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결말에서 ‘나’와 권력자인 권씨 사이에 불화가 생겨 결국 ‘나’가 마을에서 쫓겨난다. 따라서 이 쫓기게 되는 과정 또한 이 작품의 거시적 특징이다.

쫓기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는 학교에서 수석이 되고 싶은 류씨, 학무위원이 다시 되고 싶어하는 권씨, 수석으로 지내고 있는 윤씨와 신입 교사인 ‘나’, 이렇게 총 4명의 교류 양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류는 권의 권력에 의존하는 자이며, 두 사람이 윤을 쫓아내기 위해 ‘나’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한다. ‘나’는 권의 본모습을 발견한 후 윤과 같이 학교에 있는 권의 세력을 깨끗이

35) 장혁주 저, 호테이 토시히로 역, 『장혁주 소설선집』, 앞의 책, 99쪽.

제거하기로 했으나, 직원회의 때 학부위원 투표 자리에서 ‘나’는 결국은 윤을 배신하여 권에게 투표하고 만다. ‘나’가 어떻게 권에게 넘어가 윤을 배신하고 권에게 투표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권이라는 남자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주목해야 한다. 권은 자신이 여기저기 힘들게 다니면서 남들을 도와주었으나 상대방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줄 모른다고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제국주의자의 태도를 상기시킨다.

(1) 러일전쟁 후 조선이 우리 보호국내로 들어온 이래 우리 통감부는 문명과 평화의 바람을 품고 이 어두컴컴한 야만의 땅과 혼미한 생령에 남풍을 보내 한 줄기의 광명을 주고 평화를 주고 문명을 강제하고 있다. (중략) 문명의 시대에 시대의 문명을 모르는 한인을 위해 문명의 기틀을 주려고 몸이 노쇠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아, 의심 많은 한국,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한인 (후략)³⁶⁾

(2) “김선생” 권은 껍 하며 한잔 들이키고는, 거무데데한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고 눈을 번쩍이며 말했다. “지금 당신이 밥을 묵고 있는 그 학교가 누구 덕에 세워진 줄 알아여? 김선생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게 모두 내 덕이지여”

권은 그렇게 말하곤 홍수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창설 기성회의 회장이었을 때부터 학교가 설립되기까지의 고난사를 줄줄이 말했다. 기부금 징수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는 매일같이 허리춤에 도시락을 매달고 마을 곳곳의 유지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다녔으며, 위치문제로 옆 동네와 얼마나 으르렁댔는지를 이야기했다.³⁷⁾

위의 인용문은 권이 지닌 여러 특징 중에서도 일제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면을 보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2)에서 학교 설립을 위해 자신이 한 노력들을 말하는 권은, ‘나’에게 자신의 고난사를 나열한다. 실제로 권의 행동은 돈을 뜯으려는 야심 찬 정치가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는 자신의 행동을

36) 샤쿠오 교쿠호, 「한인은 어떻게 일본을 보는가」, 『조선』, 제1권 제2호, 1908.4, 24쪽; 김계자, 『근대 일본문단과 식민지 조선』, 역락, 2015, 15쪽 재인용.

37) 黃源, 「姓權的那個傢伙」, 앞의 책; 장혁주 저, 호테이 토시히로 엮, 『장혁주 소설선집』, 앞의 책.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1)에서 일본이 조선에 행한 일들은 은혜인데 조선인들은 이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서술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권은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일제의 검열에 통과되어 일본문단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장 큰 까닭은 권씨의 태도가 1919년부터 코민테른을 통하여 많은 돈과 자원을 조선에게 제공한 러시아 공산당의 모습과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장혁주의 초기 작품들이 프로문학의 색채를 농후하게 띠고 있으며 또한, “프로문학의 번역은 세계주의와 닿아있다”는 점, “프로문학은 만국 프롤레타리아의 연대를 주창하는 것”³⁸⁾이 있는 것을 보면 민족주의와 정반대의 특징을 지닌 권씨는 세계화된 제국주의 혹은 코민테른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라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내부의 권력 암투 이야기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코민테른 지도를 받은 공산당 세력들에 관한 이야기, 나아가 ‘중국공산당의 이야기’³⁹⁾처럼 보여졌을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해 회의를 느낀 주인공인 ‘나’는 어떻게 권에게 투표하게 되었을까? 권에게 투표하기 전까지 ‘나’는 권과 5번의 만남이 있었다. 이 5번의 만남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 과정은 각각 류와 함께 권을 만난 것 (1), 그 후 혼자 권을 찾아가 만난 것이 2회(2) (3), 다시 류와 함께 만난 것 (4)이다. 마지막의 만남(5)은 친구인 ‘이(씨)’와 함께 권을 만난 것으로 세 부

38) 김주현,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위의 논문, 172쪽.

39)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은 나라별의 공산당 세력들이 일본, 조선, 중국, 타이완이 있었다. (...) 원동(遼東)지역에 있어서 코민테른이 가장 늦게 관심을 가진 곳이 곧 타이완 지역이었다. (...) 당시 코민테른은 대만공산당을 일본공산당 밑에 분류시켜서 지도하게 하였다. (...) 타이완공산당원 중 일본공산당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설홍(謝雪紅)의 과거 있었고, 중국공산당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웅택생(翁澤生)의 과거 있었다. (...) 이 두 개 과 사이에 정치적인 긴장관계가 있었다. (...) 중국공산당이 대만공산당 내부에 개입하려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 내부적 파벌의 분열에다가 일제 식민자의 의도적인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코민테른이 견고자 했던 노선까지 지켜지지 못했고, 대만공산당이 하려던 항일혁명운동이 결국 실패하였다. (...) 1928년 4월 15일 웅택생(翁澤生)에 의해 개최된 공산당대회에서 중공이 개막식을 진행했는데, 대만공산당의 지도본부인 일본공산당이 당시 일본정부에 의해 검거 당하고 지도자들이 거의 잡혔기 때문에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陳芳明, 『殖民地台灣：左翼政治運動史論』, 麥田出版, 2006. 20~100쪽.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은 일제식민자가 끼쳤던 영향이 중국공산당의 것보다 더 컸음은 사실이다. (밑줄은 인용자 강조)

분으로 다시 나뉜다. 각각 ‘이’가 오기 전 먼저 권을 만난 것(5-1), ‘이’가 도착한 후(5-2), ‘이’가 떠난 후(5-3)이다. 주목할 점은 ‘나’가 혼자 권을 상대할 때인 (2), (3), (5-1), (5-3)에서만 ‘나’가 권의 말에 설득당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먼저 류와 함께 권을 만난 상황을 살펴본다.

(1)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중략) 나는 처음에 왜 권이 그토록 화를 내었는지 내심 놀랐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보니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한턱 낼 요량이었다면 괜찮지만 내가 술값을 지불하려는 것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부딪친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이 어째 좀 이상했다. 그것이 또 너무나도 물욕이 없는 듯 보여서 권의 크고 무서운 얼굴이 귀엽게까지 느껴졌다.

(4) 그날 밤도 전날과 거의 다름없이, 윤가들 험담으로 세 시간이나 계속 지껄여댔다. 권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주문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이것저것 가져오도록 마누라에게 명령했다.

나는 오늘밤 음식값을 류에게 내도록 할 생각이었으나 전날 밤의 일이 떠올라 어찌면 권이 잔돈을 내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얼마인가를 물었다. (중략) 류는 “김군 좀 내주소. 이거 미안하네여”라고 하며 벌서 마당으로 내려섰다. (중략) 나는 길로 나오자 더욱 울화가 치밀었다. 권의 느물거리는 얼굴이 더욱 밍살스러웠다. “저놈, 너무 치사한 작자야. 아니. 속이 시커먼 자야”라고 생각했다.⁴⁰⁾

이와 같이 류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권의 말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권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권의 행동에 분노를 느껴 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류와 함께 있을 때의 ‘나’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2) 권은 소곤소곤 내게 속삭이며 유쾌한 듯 웃었다.

40) 黃源, 『姓權的那個傢伙』, 앞의 책; 장혁주 저, 호테이 토시히로 역, 『장혁주 소설선집』, 앞의 책.

나는 권의 말에 정신을 빼앗겨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중략) 나는 권의 말을 완전히 믿어버리게 되었다. 윤과 윤의 숙부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을 알자, 윤가들이 극악한 인간처럼 느껴졌다. (중략) 나는 그렇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의 커다랗고 추태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그 인왕과 같은 얼굴이 슬쩍 웃을 때는 기분 나쁜 생각이 들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묘한 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3) 나는 길을 걸으며 오늘밤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을 했다. (중략) 권같이 악마 같은 남자에게 팁을 줬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서 돌아왔다.

그러나 권이란 자가 그런 알팍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중략)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다음날 밤, 류와 함께 권의 집으로 갔다.

(5-1) 권이 몹시 친한 척하며 말했다. “자 어땠노. 정말 맛있는 거라여.”

나는 권이 한 달도 넘게 서로 말 한 마디도 없이 불편한 심기인 것을 알 텐데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에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그만, 권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5-3) “아아 그랬습니까. 거기 참 좋은 일이지여. 지도 꼭 끼어 주시소.”라며 권이 흔쾌히 받아들였으므로 나는 안심했다. 나는 권의 의외의 면을 발견하고는 또 다른 친밀감을 느꼈다. 나는 풋내기로 상대에게 금방 감격하는 예의 그 버릇 때문에 권을 완전히 믿어버렸다. 나는 이 학교로 오기 전까지 청년운동을 한 일들을 권에게 쏟아내었다.⁴¹⁾

그러나 권과 단둘이 있을 때 ‘나’는 권에게 금세 설득되는 모습을 보인다. 권이 하는 말마다 믿고, 잠시 의심스럽더라도 그 직감을 믿지 못하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하며 권을 믿고자 한다. 류를 통해 권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 권이 부유한 지주라는 사실, 권이 거스름돈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 등 권의 부정적인 면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에 대한 신뢰를 끊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들려주기에 이

41) 黃源, 『姓權的那個傢伙』, 앞의 책; 장혁주 저, 호테이 토시히로 엮, 『장혁주 소설선집』, 앞의 책.

른다.

이에 권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가 권에 대해 모순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권의 정체성 내지 외모가 준 영향 때문이다.

(1) 권의 얼굴은 석불과 같이 거대하였으나 불상과 같은 온화함은 물론 없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인왕상의 도깨비 탈 같은 무시무시함도 없었다. 나는 권의 두 개의 큰 귀의 귓볼 아래에, 마치 포도 크기만 한 붉은 살점이 매달려서 중국 부인의 귀고리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저런 하며 놀라서 주시하여 보았다.

(2) 내가 권의 집으로 들어서자. 안방의 온돌을 비로 깨끗이 쓸어내고 있던 권이 서양돼지모양 엉덩이를 느릿느릿 움직이며 내려서서는

(3) ‘아, 김선생도 참여했었구나.’ 권이 놀란 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참 위대하셨다. 나도 그런 운동을 한 적 있었다. (중략)

나는 권이 이곳에서 이전에 비밀결사라도 조직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김선생, 여깁니다여.” 권은 거무칙칙한 얼굴을 들이대고 눈을 부라리며 희번덕거렸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를 했습지여.” “집회가 열렸답니다여. 기독교 교회였다.” (중략)

잠시 후, 그 돼지우리 같은 초가집을 나오자, 권은 이번에 학무위원으로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물었다. 내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자, 권은 꼭 자기를 추천해 달라고 하며 나를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⁴²⁾

상기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의 모습은 긍정적이지 않다. 얼굴이 석불같이 크나 불상의 온화함은 없다는 말은 곧 권의 모습이 고대의 불교인의 모습과 달리 식민지시기의 불교인 내지 불교를 국교로 삼는 일제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의 지배를 받은 한국은 ‘1920년대 후반에 승려

42) 黃源, 『姓權的那個傢伙』, 앞의 책; 장혁주 저, 호테이 토시히로 역, 『장혁주 소설선집』, 앞의 책.

80% 이상이 대처식육(帶妻食肉)을 수용했다가 ‘1930년대에는 대처식육의 문화가 한국불교계 내부에 확실하게 정착되었다.’ 자본의 문제를 수반하는 이 ‘대처식육은 한국불교의 승단에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⁴³⁾ 이는 불교가 일제의 문화로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의 온화한 종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종교인들과 같이 권은 처가 있고, 육식을 한다. 그가 불교신자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인공인 ‘나’의 눈에는 자본주의를 적극 수용한 불상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컷불이 부처의 모습이 아닌 중국부인의 귀고리로 묘사된 것, 즉 중국인의 컷불도 아닌 오직 중국 부인의 귀고리만을 닮았다는 말은 권의 자본화된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를 지닌다. 가령 장혁주가 권이라는 남자에 대해 ‘중국식 불교에 대한 일본천황의 멸시 및 조소’⁴⁴⁾ 식의 태도를 갖는 사람으로 비유하려 했다면 그의 귀는 중국인 남성이 아닌 중국인 여성, 그것도 오직 화려한 귀고리를 낀 것처럼 보인 것은 타당하다.

권은 ‘진정한 종교로서가 아닌, 정치화되고 자본화된 불교를 활용하려는 일본 천황’⁴⁵⁾을 대표하는 동시에 또한 그의 엉덩이가 서양돼지와 같아 탐욕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권은 사회주의를 했었던 ‘나’에게 자신도 “그러한 운동”을 했다고 말해놓고는 그것이 기독교(교회)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지점에서 권은 ‘기독교’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고 그것들의 ‘싸움질’⁴⁶⁾하는 부

43) 夢庭生, 『危機에 直面한 朝鮮佛敎의 原因 考察(續)』, 불교 101·102합호, 1932.12, 26쪽;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 대처식육의 이원적 노선 - 일본 불교 수용에 대한 찬반의 사례』, 『일본불교문화연구』 13호,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5; 金敬注, 『僧侶의 生活問題』, 『불교』 100호, 1932.10, 45쪽.

44) 이에 대해 조승미의 논의가 참고할 만하다. ‘메이지 초기부터 태평양전쟁 패전 때까지 일본불교는 해외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것은 서구 기독교세력으로부터 아시아 불교가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불교와 연대할 것을 생각했으나 중국불교의 피해함을 확인하고 난 후 전도를 목적으로 전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승미, 『근대 일본불교의 중국진출과 아시아주의』, 『불교학보』 49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

45) 근대 이후 일본사회 속에서 불교계는 사실상 천황을 정치적·사상적 정점으로 하는 신도 중심의 국가 체제에 들어가 있었다. 즉, 불교가 비록 전통적인 종교문화로서 일본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천황 중심의 신도체제 속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태승, 『일본 메이지시대 신도와 불교의 갈등』, 『일본불교문화연구』 12호,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5 참조.

46)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서로 어떠한 공통점을 지니는지 알기 위해서 기독교 성경의 내용 및 권씨의 컷불을 닮은 “중국 부인의 귀고리”의 나라인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지도자인 모택동이 했던 말을 위주로 참고하여 초보적으로 살펴보았다. 예컨대 개정개역의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며, 자신은 평화가 아니라 싸움을 위해 내려온 것이

분을 주목하는 사람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심취했다가 회의를 느낀 ‘나’는 그러한 권의 말에 속았고, 선동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자본화된 불교, 싸움질을 잘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라는 키워드를 통해 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근대화 과정 속에서의 ‘사기를 치는’ 제국의 권력자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인물과 싸웠다가 패배하여 쫓겨난 것은 권력자를 근거 없이 신뢰했다가 피해를 받은 인물의 형상화다. 이와 비슷하게 장혁주가 『쫓겨가는 사람들』에서 다루는 농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국주의자인 일본인 회사 담당자의 경영방식을 믿었다가 결국 피해를 받아 쫓겨나 도시로 유랑해야만 하는 처지이다. 이 지점에서 두 작품은 작가의 표현 방식이 다르되 비판하는 대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장혁주는 『쫓겨가는 사람들』에서 노골적으로 식민통치에 대해 묘사했고 『권이라는 사나이』에서 은밀하게 권씨 외모의 다양한 특징을 이용하여 일제 식민자에 비유하되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오직 조선인끼리의 싸움 즉 동족상잔의 방식으로만 드러낸 것이다. 동족상잔의 집단이 가령 식민지 조선에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수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특수성은 중국대륙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국공내전의 주체들에게는 매우 보편성을 띤 전형적 인물로 다가왔을 것이다.

2) 실향민 서사로서의 봉건자본

1934년에 쓰여진 『산령』은 『쫓겨가는 사람들』과 『권이라는 사나이』 속의 ‘쫓겨감’과 ‘사기 당함’이라는 모티프를 담고 있다. 동시에 쫓겨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민에서 화전민이 되었고, 화전민에서 산농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매일 매일 생존의 위기를 해결하려 하다가 끝내 굶어 죽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늘 알려진 모택동의 사상-우상숭배에 대한 타파, 가족 조상의 존재보다 무산 계급의 공산세상의 존재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태도, 인간이란 늘 투(鬥)와 동(動)해야 한다는 정신-과 비슷한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李澤厚, 위의 책.

『산령』에서 장혁주는 “이렇게 화전 생활을 하는 화전민들은 날이 갈수록 격증한다”, “최근의 신문에 따르면 조선의 전체 화전민 수량이 벌써 14만호나 되었다.”라고 덧붙여 적는다. 이것은 1934년의 화전민 상황이 ‘경작할 수 있는 밭이 너무나 부족한 1920년대의 상황’⁴⁷⁾보다 농민들의 삶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소설에 ‘1930년의 산농지도정책’⁴⁸⁾ 관련 내용이 없어 장혁주는 1929년까지의 화전민 상황만을 위주로 형상화한 가능성이 클 것이다.

『산령』의 주인공은 길선이라는 16살의 소녀이다. 그녀의 일가는 본래 오천읍의 옛 문화가 잘 발달한 곳에서 잘 살았다. 그러나 “근처의 고을에서 철도를 건설했고 오천읍 안에 기차도 들어온다.” “마을의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진다.” “삼년 사이에 길선 일가는 가끔 오천보다 더 큰 도시에 가기도 하고, 가끔 고향으로 가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살지 못한다.” “그때까지는 ‘굶어죽어도 화전에 가지 않는다’고 하며 화전에 간 사람들을 비웃는 이빠조차 갈 곳이 없어서 오천과 5~6리쯤 떨어진 산 속의 화전촌 분류계까지 왔다.”⁴⁹⁾ 등 같은 내용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도시로 쫓겨간 후에 제대로 살지 못해 끝내 산의 부근에서 화전을 경작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작가가

47) 김정아에 따르면 ‘1911년 『삼립령』 아래 화전을 금지하는 처벌규정이 법제화된 상황에서 국유임야의 개발을 위해 임정기관이 정비되며 국유림 내 살림 개발과 단속을 위해 본격적인 화전정리사업이 단행되었다.’ 김정아, 『일제강점기(1916~1937)의 화전민문제와 조선총독부의 산농지도정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그리고 강만길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생활을 급격히 영세화(零細化)시켰고 이 때문에 이농(離農)인구를 격증시켰다.’ 일제의 정책은 당시 ‘이농인구를 산업인구로 수용할 수준에 있지 못했고, 이농인구의 일부는 일본이나 만주의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나머지 대부분은 유랑(流浪)거지로 전전하거나 화전민으로 혹은 도시의 토막민으로 바뀌어갔다.’ 1920년대의 조사결과에서 조선반도 ‘전체 화전의 면적이 1924년에서 1928년까지 약 1.9%라는 8만 정보(町步)가 감소되었으나 전체 화전민 호수(戶數)가 9806호로 무려 4.2% 증가했다.’ ‘이것은 화전민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었음을 말해준다.’ 강만길, 『일제시대의 화전민 생활』, 『동방학지』 2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1.

48) 화전민의 삶의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단속을 본질로 한 화전 정리가 진행됨에 따라 각지에서 화전민의 저항사태가 빈발하며, 1929년에 갑산화전민 구축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북선개척사업의 수행으로 산림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박차가 가해지며 화전민 통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사법적 처벌 위주의 화전정책은 한차례 궤를 달리하여 산농지도정책으로 마련되었으나 농업에 장기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사회현상의 근본적 해결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김정아, 위의 논문.

49) 胡風 譯, 黃源 編, 앞의 책. 역자는 필자.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 ‘삼림령’ 하의 농민들이 피해를 받았음은 말하지 못하고, 오직 농촌의 근대화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폭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의 주요 배경은 분류계와 깊은 삼림 속이다. 화전촌인 분류계에서 길선이 일가는 더 이상 경작할 땅을 구하지 못해 깊은 산 속에 가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상황은 곧 “길선은 12세까지 평지에서 살았으며 분류계에는 친구 몇 명 있다.” “그러나 여동생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친구가 없는 이 요괴 궁전 같은 숲과 암석, 시냇물 속에서 자라야 할 지도 모른다.”⁵⁰⁾의 말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그들은 고향을 잃은 후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쫓길 곳이 없다. 가령 그들이 깊은 삼림 속에서도 음식을 찾지 못한다면 죽음의 길만 남는다. 작가는 길선이 여동생의 미래 성장 환경을 통해 훗날 이 실향한 가족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 통치에 대해 형상화하지 않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야기의 거시적 특징은 곧 고향의 상실과 그것의 심화에 따른 비극이다.

소설은 길선이 일가가 분류계에서 출발하여 더 깊은 산 속에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과거 회상 내용이 많은 비중으로 삽입된다. 이 과거 회상에서 작가는 당시 조선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서 근대화에 대해 비판하고 나아가 근대화를 통한 문명화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던 봉건적인 사고방식까지 활용한다. 길선이 어머니는 길선이를 낳기 전 두 아들을 먼저 낳았었다. 아버지는 항상 그 두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은 일을 두고 자신의 전처가 죽었고 지금의 아내가 왔기 때문에 “집안의 운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 이 말은 아들에 대한 미신 관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버지가 재혼했을 그 해쯤 반도의 사회제도 속에 커다란 변혁이 있었다.” “그 후부터는 자본주의 사회로 변신하기에 이르렀다.”⁵¹⁾라는 말이 이어서 등장한다. 이것은 작가가 지배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먼저 봉건적인 담론을 통해, 그 다음 자본에 대한 언급을 통해 비판했음을 의미한다.

50) 胡風 譯, 黃源 編, 앞의 책. 역자는 필자.

51) 胡風 譯, 黃源 編, 앞의 책. 역자는 필자.

조선 당시의 상황은 식민자의 존재 때문에 악화된 것이 맞지만 작가는 검열로 인한 부담 때문에 식민정책의 문제 중 오직 봉건문화와 자본문화에서만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식민지에서 봉건문화와 자본문화의 결합체는 곧 지주이다. 소설 내용에 따르면 “자본사회로 진입한 후 자급자족했던 그들이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오천에는 적지 않은 지주들이 날이 갈수록 빈민해진 다.”, (농민인) “그들은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소작농에서 빈농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온 일본인 지주와 중국 상인들의 교묘한 착취를 당해야 한다.”⁵²⁾는 설명이 있다. 이 부분에서 장혁주가 식민자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을 살찌지게 하면서 자신의 살만 찌우는 지주라는 인물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폭로의 효과를 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지주는 곧 ‘불공정한 삼림령을 반포한 식민자’를 대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⁵³⁾ 길선이 아버지는 김씨 지주에게 빚을 저서 땅을 강제 저당 잡혔다. 그는 빚을 갚아야만 자유롭게 땅을 경작하며 가족들을 먹일 수 있다. 그러나 지주가 제시한 높은 이자율에 비해, 자신이 경작 가능한 땅, 자신의 노동력, 자신의 농산물의 수확량 모두 반비례 관계이다. 따라서 그들 일가는 지주에게 빚을 갚기 위해 연속적으로 지주에게 고리대금 식으로 대출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빚 갚기에 급급해서 식량을 비축할 수 없고 날마다 일을 하느라 배부르게 먹지 못할 뿐더러 휴식까지 취하지도 못한다. 장기간의 노동 결과로 집안에 남겨둔 길선이의 두 명 남동생 큰 아이 갑술이 죽고 말았고,⁵⁴⁾ 막내아들은 그후 어느 날의 밤에 늑대에게 물려가 죽었다. 이렇듯 화

52) 胡風 譯, 黃源 編, 앞의 책. 역자는 필자.

53) 이 사실은 “××가 위엄 있게, ×××가 기세가 흥하게 말했다.”, “말하길 지금까지 개척한 화전은 말할 것 없이 모두 국가의 숲이다.”, “국가의 소유지를 함부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동안 개척한 화전은 그대로 경작해도 된다.”, “그러나 새롭게 화전을 개척하면 절대로 안 된다.”, “누군가가 이에 위반하면 300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10년 이하의 감금을 당한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반항할까봐 걱정하기까지 했으나 이번엔 ××와 ××가 왔다 갔으니 그들은 운운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 늑대에게 빼앗긴 더 불쌍한 돼지와 닭은 별 것 아니게 되어 더 힘껏 잔치를 준비하기로 한다.” 등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검열의 문제로 인해 문제의 대상이 복자로 처리되었으나 장혁주가 폭로하고자 하는 지배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추측 가능하게 하는 부분임은 분명하다. 胡風 譯, 黃源 編, 앞의 책. 역자는 필자.

54) “옆에 어른이 없어서 힘들어해서 오랫동안 지나 죽게 된 것인가 보다.”라는 내용에서 지주나 이를 비롯한 노동 문제가 간접적으로라도 갑술의 죽음을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胡風 譯, 黃源 編, 앞의

전촌인 분류계에 오기 전에 길선이 일가는 두 명 아들을 잃었고 분류계에서도 끝내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만다. 그래서 분류계를 떠나 깊은 산 속에 들어온 길선이 일가는 오직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여동생인 소선이와 길선이 이렇게 4명만 남는다. 식민자의 대변인인 지주인 김씨는 깊은 산 속으로까지 찾아와 빛을 갠다고 재촉한다. 길선의 부모는 굶어죽을 것 같아 도저히 빛을 갠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지주는 감언이설⁵⁵⁾을 하며 길선이를 자신의 첩으로 보내라 권유한다. 이것은 식민주의자가 조선인들을 본국을 위한 착취 경영의 대상으로 다루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자본의 문제를 납첩(納妾)이라는 봉건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함을 뜻한다.

길선의 부모는 물론이며 길선이 역시 죽어도 지주의 첩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추운 겨울 산 속에서 어머니는 결국 황중증을 이겨내지 못해 세상을 뜬다. 어머니의 젖이 필요한 소선이기도 뒤이어서 죽고 만다. 아버지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이상해진다. 길선이는 이 모든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 생긴 일들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길선이는 다가올 겨울에 아버지가 추위와 기아를 버티지 못하실까봐 걱정한다. 이에 길선이는 다음 해 가을이 되자 지주 김씨의 하인에게 첩이 되는 것을 승낙한다. 이것은 길선이와 아버지는 모두 자본주의의 피해를 입으면서 끝내 첩 문화라는 봉건제도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생존을 위해 지주의 첩으로 살게 된 길선이는 “반드시 아버지도 분류계에 같이 가서 살아야한다.”라고 조건을 걸며 “아버지는 내일 되면 아마도 하산하여 같이 생활할 것이다.”⁵⁶⁾라는 생각만 하고 지주의 하인들과 같이 하산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주 김씨는 거짓말을 했다. 지주 김씨는 사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실 생각이 없었다. 길선이가 이를 뒤늦게 알았고 후회한다. 그녀는 눈이 내리자 아버지를 걱정하여 온갖 기회를 노려서 산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봄이 올 때쯤이 되고 나서야 그녀는 산에 들어갔으나 아버지는 이

책, 역자는 필자.

55) 그 내용은 ‘나는 이미 마흔 살이 되었으나 아직 후손이 없다.’ ‘아가씨를 나한테 주면 영감과 어머니의 먹을 것은 나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을게.’이다. 胡風 譯, 黃源 編, 앞의 책, 역자는 필자.

56) 胡風 譯, 黃源 編, 앞의 책, 역자는 필자.

미 눈 속에 파묻혀 죽어 있었다. 「권이라는 사나이」와 「산령」은 사기를 벌이는 지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길선이는 지주에게 속았음에도 더 이상 쫓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 「쫓겨가는 사람들」과 「권이라는 사나이」와 차이를 갖는다. 이 차이는 다름 아닌 봉건문화 속의 첩 문화 때문이다. 지주에게 길선이는 사적인 이용 가치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지시기 이전의 봉건사회와 식민지시기의 봉건사회가 과연 소녀에게 동일한 결말을 가져오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다. 만약 이 소설에서 길선이가 고대의 봉건시대의 산 속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밝혀주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옛날 말에 따르면 한 명 용감한 美소년이 求仙하러 새들도 안 사는 깊은 산 속에 갔다가 기와집 하나 발견하였는데 뜻밖에 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그 소녀는 그 집의 여덟 번째 딸이자 마지막 딸이다. 소년은 매일 밤에 귀신에게 한 명씩 음식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과, 그 소녀가 마지막의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팔 개 머리 팔개 손을 가진 그 귀신을 쫓아내 소녀를 구해 인간세상으로 데리러 온다. (밑줄은 인용자. 그 부분의 일본어 원문은 ‘수행하러’로 되어 있다.)

(2) 며칠 후 분옥의 오빠가 몰래 길선에게 알려준다.

“너의 동생 시체는 숲 속 암석 사이에 끼어 있었다. 머리, 손, 발만 남아있더라. 나도 소름 끼쳤다. 그냥 묻어두었다.”

(3) 밤이 되자 길선이는 아버지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 분옥과 말순이와 노는 것도 싫증이 난다. 겨울이 무서워도 좋다. 호랑이와 늑대가 와도 좋다. 오직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김병수 가족 사람들이 이 의향을 파악하자 감시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결심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기회를 놓 도망쳐야겠다.⁵⁷⁾

(1)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옛 시절에 연약한 소녀가 소년에 의해 구출되어 산을 떠나 평지에서 안전하게 살았다는 내용, 소년이 무섭게 생긴 괴

57) 胡風 譯, 黃源 編, 앞의 책. 역자는 필자.

물과 싸웠고 그 괴물을 쫓아냈다는 내용이다. (2)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소녀가 소년의 두려운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은 그녀의 남동생의 시체를 봤으나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3)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소녀가 무서운 산에서 내려왔으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걱정으로 인해 다시 무서운 산으로 향해 가려는 모습이다. 심지어 그녀가 가장 무서워하는 계절인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산에 가려고 한다.

이것은 근대의 봉건사회에 들어오면서 고대의 봉건사회에 존재했던 그 '새들도 안 사는 깊은 산 속에 갇던 용감한 소년'의 영웅상이 없어지고 대신에 산에서 죽어가는 부친을 위해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산에 들어가는 소녀가 등장했다는 변화를 보여준다. 즉, 식민지시기 농민의 이동 현상을 장혁주는 구원자인 영웅이 아닌, 같이 죽음을 불사하는 효녀 상으로 표현했다. 이는 지주, 즉 봉건자본(封建資本) 사회에 대한 폭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에서 길선이는 오직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다 다시 지주 일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분류계로 온다. 길선이를 통해 장혁주가 보여준 것은 결국 실향민인 길선이는 봉건문화에 갇히게 되었고 국가의 삼림령으로 인해 길선이 일가는 자본사회의 희생양이 된다. 장혁주는 봉건 색채를 띤 자본사회의 묘사를 통해서 쫓겨가는 사람들 즉, 실향민의 상황을 묘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령」을 산신이나 산귀의 이야기로 보면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주장명이 이해하는 '상흔이 많은 노예의 영혼'에 더 가깝다. 그러나 이것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산령은 실향한 산농들의 유령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다. 도시 노동자가 아닌 산농들은 산에서 음식을 찾다가 굶어 죽는다. 이러한 점을 보면 '산령'은 기존 연구자인 김병식이 기대하는 구원의 존재나 화전민들을 수수방관한다는 존재(산을 지키는 신)가 아니라, 식민정책 하에 실향하여 봉건자본사회에서 죽어버린 산농들의 유령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또한 이 작품이 표제로 선정된 이유와 그 의미는 중국의 심각한 봉건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반봉건 반식민의 상태'⁵⁸⁾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풍

은 「산령」에 나타난 봉건자본주의적인 상황에서의 농민들의 실항 문제를 망국 위기 속에서의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했을 것이다. 중국은 당시 봉건문제를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데다가 외세 침략을 맞서기 위한 근대화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산령」 속의 특수성인 봉건자본의 화제가 중국인들에게는 보편적인 소재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장혁주가 식민 통치에 의한 실항민의 처지에 대해 조선의 일부에 나타난 봉건자본가의 사기 행위를 통해 폭로하였고, 그것은 호풍이 전면적으로 폭로하고자 한 대다수 중국 국민들에게서 보이는 약점과 병태에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4. 결론

이 글은 1930년 초 중국에 소개된 장혁주의 중요한 3편 작품들이 지니는 리얼리즘적 의미를 밝히도록 하였다. 당시 식민지인 작가인 장혁주는 「쫓겨가는 사람들」, 「권이라는 사나이」, 「산령」 등 작품들을 통해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당시 중국 평론가인 호풍 등 온화한 좌익 지식인들이 장혁주의 독특한 리얼리즘 기법인 보편성과 특수성의 재현방식에 매력을 느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소설을 썼던 장혁주는 한민족의 비참한 처지를 세계에 알리려는 프로문학의 동반자 작가였고 동시에 한민족이 지니는 부족함을 수정하려는 민족주의 작가였다. 장혁주는 「쫓겨가는 사람들」에서 노골적으로 식민통치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지배당국에게 위협을 받아 뒤이은 「권이라는 사나이」에서는 중국에서의 화두이기도 한 동족상잔이라는 주제를 바

58) 최자웅은 “1851년 태평천국 홍수전의 뒤를 운동을 이은 중국의 근대와 현대 역사를 반봉건 민중 중심의 혁명을 추구한 인물인 손문과 모택동”에 대해서 “손문은 봉건 중국 인민에 대해서 이론과 정치 실천을 통해 공화제를 실천하려 했고 모택동은 중국인민의 자존으로 계국주의와 봉건주의 그리고 군벌 및 관료자본주의로부터 인민과 계급을 해방시키려 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근대의 중국을 봉건자본의 체제로 이해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자웅, 「마오이즘과 손문주의의 인간 이해와 실천전략 연구 - 중국 혁명기, 두 사상의 연속성과 차이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탕으로 조선인 인물들을 통해 은밀하게 식민자와 조선인 내부의 권력 문제를 폭로했다. 『산령』은 중국인에게 장혁주의 우수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장혁주가 중국에서도 존재했던 봉건자본가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선의 식민지인들의 실향 문제와 연결시켜 다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혁주는 소설을 통해 조선 식민지의 비참한 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있어 조선 내부 소수의 동족상잔의 문제와 봉건자본의 문제를 활용하였다. 이것이 어찌면 국내의 대부분 연구자들이 장혁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 하지 않고 그의 몇 백편이나 되는 작품들을 시중에 제대로 소개하려 하지 않게 된 원인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호풍의 담론과 장혁주의 담론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중화적 문화권에서 유명했던 장혁주는 작가 생애를 시작한 이후부터 늘 겸손한 자아비판의 태도로 자국의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리얼리즘 기법으로 형상화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1930년대의 한국문단이 그의 소설에 내린 평가를 재고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그의 수많은 작품들에 대해 한국 안의 보편성이 아닌 세계 속의 보편성이라는 세계문학의 관점에서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만길, 『일제시대의 화전민 생활』, 『동방학지』 2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1.
- 郭湛波, 『近五十年中國思想史』, 上海世紀出版股份有限公司 上海古籍出版社, 2010.
- 金敬注, 『僧侶의 生活問題』, 『불교』 100호, 1932.10.
- 김 욱, 『식민지 조선·대만의 고등교육기관 문예활동 비교연구 - 학내 잡지 및 일본어 문예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계자, 『근대 일본문단과 식민지 조선』, 역락, 2015.
-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 대처식육의 이원적 노선 - 일본 불교 수용에 대한 찬반의 사례』, 『일본불교문화연구』 13호,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5.
- 김병식, 『장혁주의 『산신령』과 김사량의 『태백산맥』 비교 고찰』,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장선,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의 장혁주 작품 번역 수용』, 『한중인문학연구』 제51집, 한중인문학회, 2016.
- 김정아, 『일제강점기(1916~1937)의 화전민문제와 조선총독부의 산농지도정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김주현,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현황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81호, 국어국문학회, 2017.
- 김창규, 『1920년대 중국에서 ‘현학’과 ‘과학’ 논쟁』, 『중국사연구』 78권, 중국사학회, 2012.
- 김학동, 『장혁주의 문학과 민족의 굴레』, 역락, 2011.
- 李澤厚, 『中國現代史思想史論』, 北京東光印刷廠, 1987.
- 夢庭生, 『危機에 直面한 朝鮮佛敎의 原因 考察(續)』, 『불교』 101·102합호, 1932.12.
- 巫永福, 『呂赫若의 點點滴滴』, 『巫永福全集 評論卷』, 臺北: 傳神福音, 1996.
- 백세철, 『개조문예란과 조선작가』, 『제1선』 7호, 1932.11.
- 샤쿠오 교쿠호, 『한인은 어떻게 일본을 보는가』, 『조선』 제1권 제2호, 1908.4.
- 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 - 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 신형기, 『문학운동노선의 수립 - 문학자의 자기비판-』, 『해방3년의 비평문학』, 세계도서 출판, 1988.
- 신희교, 『G.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소고1』, 『어문논집』 27권1호, 안암어문학회, 1987.
- 엄영옥·임흥도, 『양쿠이와 김사량과 장혁주 비교연구』, 『중국인문과학』 61집, 중국인문학회, 2015.
- 葉君健, 『被驅逐의 人間』, 『申報月刊』 3-6, 1934.6.15.
- 吳敏惠 製作, 李行 導演, 賴豐奇 撰稿, 『作家身影系列二: 咱의所在 咱의文學2 -冷峻의人道關懷者 呂赫若』, 台北市: 春暉國際, 2002.(影音資料)
- 오이훤, 『대만 내 한류 수용 및 토착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王惠珍, 『帝國讀者對被殖民者文學의 閱讀與想像: 以同人雜誌《文藝首都》為例』, 『台灣文學研究集刊』 11, 台灣大學台灣文學研究所, 2012.
- 윤미란, 『장혁주 문학 연구: 조선을 소재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伊東勉 著, 이현석 역,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 세계, 1987.

- 이태승, 『일본 메이지시대 신도와 불교의 갈등』, 『일본불교문화연구』 12호,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5.
- 임춘성, 『1930년대 후평의 리얼리즘론 연구』, 『중국현대문학』 15집,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1998.
- 張嘉元, 『呂赫若研究』, 東海大學 碩士論文, 2002.
- 장혁주 저, 이종영 역, 『쫓겨가는 사람들』, 한국에스페란토협회, 2002.
- 장혁주 저, 호테이 토시히로 엮음, 『장혁주 소설선집』, 태학사, 2002.
- 장혁주, 『翻譯의 問題·其の他』, 『文藝首都』 1권 10호, 1933.10.
- 장혁주, 『僕의文學』, 『文藝首都』 1권1호, 1933.01.
- 張赫宙 著, 范泉 譯, 『朝鮮風景』, 永祥印書館, 1946.
- 조승미, 『근대 일본불교의 중국진출과 아시아주의』, 『불교학보』 49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
- 朱家慧, 『兩個太陽下的台灣作家』, 台南: 台南市立藝術中心, 2000.
- 周錮鳴, 『讀過的書: 山靈(朝鮮台灣短篇集, 胡風譯, 文化生活出版社出版)』, 『讀書生活』 4: 7, 1936.8.
- 陳芳明, 『殖民地台灣: 左翼政治運動史論』, 麥田出版, 2006.
- 최자웅, 『미오이즘과 손문주의의 인간이해와 실천전략 연구 - 중국 혁명기, 두 사상의 연속성과 차이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인혜, 『일제 강점기 중국에서 번역된 조선문학 - 중화적 세계문학 개념과 조선문학의 위치』, 『비평문학』 64호, 한국비평문학회, 2017.
- 許芷若, 『呂赫若書寫女性研究』, 國立中山大學 碩士論文, 2013.
- 현 민, 『장혁주씨의 문학적 행정 - 소설집 『권이라는 사나이』를 읽고』(2), 『동아일보』, 1934.7.5.
- 胡 風, 『胡風評論集』(上), 人民文学出版社, 1984.
- 胡風 譯, 黃源 編, 『山靈-朝鮮臺灣短篇集』, 文化生活出版社, 中華民國 25年 4月 初版, 5月 再版.
- 丸茂正治(외), 『文藝首都略年表』, 『文藝首都』 39卷 中刊紀念號, 1970.2.
- 黃 源, 『姓權的那個傢伙』, 『文學』 3-1, 1934.7.1.

A Study on the Realism in Jang Hyeokju's Novels Introduced in China

– Focusing on “Hunted People”, “A Man Whose Name was Kwon” and
“Mountain Spirits” –

Tsao, Chia-Yu*

This article reveals the realistic significance of Jang Hyeokju's early 1930's works which was introduced in translation works in China. Being a Japanese colonial subject Jang Hyeokju received a great amount of attention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Chinese literary world through his several works such as “Hunted People”, “A Man Whose Named was Kwon” and “Mountain Spirits”. It shows that it was happened because Chinese intellectuals were fascinated by Jang Hyeokju's representation method of universal and characteristic realism technique at that time. Jang Hyeokju openly talked about the problems of colonial rule and eventually he was threatened by the ruling authority. Later, he started to expose the problems of ruling class of Joseon with the theme of fratricidal war through his writings which was also a big issue in China. Furthermore, Jang Hyeokju also depicted the lose of hometown problem of Josen's people who were Japanese colonial subjects and he skillfully connected the feudal capitalism problem which also existed in China. These topics of Jang Hyeokju's works influenced as a symbol of country's ruination to the Chinese intellectuals as a warning message. It is an obvious

* Phd Schola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act that Jang Hyeokju embodied and recognized accurately about the situation of his own homeland and other's nations and he used these realism technique in his literary works.

However, Jang Hyeokju incurred the hatred of his own countrymen by embodying the inglorious problem of his nation's internal minorities due to his excessive self-criticism just like Chinese literary critic Hu Feng who were a recipient and translator of Jang Hyeokju's works. Therefore, Korean domestic researchers have shown very less interest in Jang Hyeokju's literature and his hundreds of works have not yet been introduced properly in the literary market. However, His literary influence in East Asian region were non-negligible level. Therefore, it is sufficient spaces to re-examine on the result of his 1930s works by Korean literary world. Moreover, it shows that those of his works which have not yet received the proper attention in Korea, need to understand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literature.

Key words : Jang Hyeokju, Korea, Japan, China, Taiwan, Novels, Realism